



이창수 한국기술사회 가스분회장

가스산업은 해외플랜트 수출을 비롯해 천연가스 도입을 통한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활동, 대체 천연가스 수요처 다변화, 바이오가스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가스기술사회 이창수 분회장을 만나 가스기술사회의 비전과 역량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일 시 : 2010년 4월 12일(월) 14:00
- 장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처장실
- 참석자 : 가스기술사분회 이창수 회장, 한국기술사회 구수연 사원

Q 먼저 분회장님의 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단국대학교에서 화학공학 공학사, 경영학 석사를 하고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에너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33년째 근무 중에 있으며 울산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교수를 겸임하기도 했고, 한국가스기술사회 설립, 화학공학회, 가스학회, 에너지공학회, 북청장학회 및 한국기술사회 이사, KOLAS 인증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가스 기술사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가스기술사들의 주요업무는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등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입니다. 생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가스인 바이오가스 및 가스를 이용한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업무영역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중동지역 등의 해외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퇴역 가스기술자들도 해외에 취업하는 등 가스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Q 가스기술사분회의 주요연혁과 회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994년 김병후 초대회장의 창립을 시작으로 3대 윤재건 회장이 기술사업무 제안 특위를 구성 가스관계법에 기술사업무를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1998년에는 한국기술사회로부터 분회설치를 승인받았습니다. 4대 이창수회장의 1년간의 노력으로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6, 7대 이호천 회장은 용역사업 추진과 학습용 교재를 발간하였고, 2001년에 4개분과위원회 및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대 변수동 회장은 기술사사

무소를 적극 육성하는 등 가스기술사들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 지원하고 타 기술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 선거에서 제9대 이창수 회장(부회장: 박광복, 감사: 신희수, 박광우)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가스기술사는 271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19명, 도시가스회사가 33명, 한국가스공사가 16명, 개인 사업자가 20여 명으로 기술사사무소는 적지만 가스기술사의 74%가 종신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거의 모든 기술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높은 응집력과 단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Q 가스기술사분회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국가스기술사회는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권익향상 및 가스안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창립 이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가스기술자 모임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스분야 최고 자격인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정회원과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가스인 등으로 구성된 준회원, 단체로 구성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분야별로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 안전진단 및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1세기 가스안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기술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2,000부의 "가스기술사"지를 발간 정부, 학교,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Q 가스기술사분회의 중장기 계획 및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가스기술사회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이공계 발전에

부응하고 회원만이 아니라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위한 가스기술사 홈페이지 <http://www.gapea.or.kr> 및 그룹웨어 <http://gw.gape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수탁 등 가스인을 위한 협회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Q 가스기술사분회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09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개정시 가스시설을 추가하면서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술사만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오류를 범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제도개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Q 앞으로 가스기술사분회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현행법상 가스기술사의 선임은 한국가스공사 3명뿐이지만 향후 500여명의 가스기술사가 활발하게 활동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평생회원 가입 및 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인 및 가스기술사 파이팅 !



▲ 2010년 가스기술사분회 정기총회 및 CPD교육